

가금산업 종합발전대책, 용두사미로 끝나지 말아야...

본지 김한웅 부장



9월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도 식을 줄 모르던 더위가 이제는 한풀 시들해져 서늘한 느낌에 가을다운 가을이 시작되는 것이 몸에 와 닿는다.

특히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던 날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탓에 가을이라는 계절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쌀 농사의 풍년, 그리고 사과, 배 등 과일을 수확하는 장면들이 TV 등을 통해 자주 접하면서 수확의 계절이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경제가 어려워져 주머니를 자물통으로 꼭꼭 채우고 있다는 소식에 가뜩이나 어려운 닭고기업계의 어려움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사료비,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인한 전체 닭고기 생산비가 큰 폭으로 뛰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장가격에 정상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해 「병어리 냉가슴 앓듯이」 내부적으로 끔끔 앓는 상황이고 보니 이런저런 생각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앞으로 더 하면 더했지 나아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현실에서 농가, 계열주체 모두가 이를 타개해 나아갈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겠지만 업계 전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서로에게 위안을 주지 못하고 불신감만 고조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미 FTA, DDA협상 타결이 눈앞에 와있고 사료가격 및 유류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의 대폭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AI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 있는 처지이다. 어느 한쪽을 흠집 내서 돌아올 이득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한번 해보자’ 식의 정서는 분명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가금산업종합발전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가금업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근원 발색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도축·가공단계,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다는 취지이다.

소, 돼지 등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가금업계로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대책의 강구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사실 “가금산업종합발전대책” 마련의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농업농촌종합발전대책”이란 제목으로 전체 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발굴하고 업계의 발전대책을 정책당국에 제시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억이 없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장이 바뀌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흐지부지 끝나버린 느낌을 지금도 지울 수 없다. 물론 같은 안건에 있어서 각 단체간의 이견도 있어 정책당국으로서는 혼란스러웠던 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농가와 계열주체가 처한 위치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또 국내외 주변여건의 상황도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육계산업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고 프로그램에 따라 산업의 발전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업계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봉합하고 외면하는 형태로 처리한 것이 부지기수였다. 또 업계 정서가 어땁고 하는 식으로 치부해온 것도 상당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 업계 내부에서 덮어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10년 이후를 내다볼 수 있는 철저한 발전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단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말까지 윤곽을 잡은 후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업계 전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모두의 노력으로 이번만은 용두사미(龍頭蛇尾) 격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